



용 모양의 고하도 해안선 3.0km를 따라 조성될 산책로에 설치될 조형물.



대반동 해안도로 1.4km와 고하도 일대 3km에 설치될 해안선 경관조명 사업 조감도.

## 고하도 내년 '목포관광 메카'로 뜬다

'용 모양의 산책로를 걷다가 고하도에 머물렀던 이순신 장군을 기념하는 동상과 거북선 조형물 앞에서 기념 사진을 찍는다. 전망대에 올라서면 탁 트인 바다와 수평선, 밤바다를 물들이는 화려한 경관 조명을 받아 빛나는 케이블카와 도선 등이 발 아래 펼쳐진다.'

내년이면 고하도에서 체험할 수 있는 풍광들이 다. 고하도 관광 메카 조성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주요 개발 사업들의 실시 설계 용역이 마무리되면서 목포 관광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게 될 고하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고하도는 내년까지 70억원을 들여 ▲해안 힐링랜드 ▲고하도 전망대 ▲경관조명 사업 등이 추진된다.

◇"바다 위를 걸으며 힐링을"=해안 힐링랜드는 고하도 해안을 따라 산책로를 조성, 고하도 절경과 바다 전망을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 총 사업비 35억원(국비 24억5000만원, 시비 10억5000만원) 등을 투입한다.

용 모양의 해안선 3.0km를 따라 산책로가 마련되고 산책로 중간에 ▲여의주를 물고 있는 용 ▲이순신 장군 동상 ▲거북선 모형 등대를 설치해 사진 촬영

해안 힐링랜드 바다 위 걷고 야간 경관 조명 밤바다 감상 20m 전망대 다도해 한눈에 해상케이블카 개통과 맞물려 연간 관광객 1000만명 유치

영 명소로 꾸민다.

목포시는 실시 설계 용역이 마무리된 만큼 다음 달 착공, 내년 3월 완공해 지역민들에게 선을 보인다

산책로가 완성되면 서남해안 바다와 케이블카, 정겨운 항구 풍경을 한 눈에 담을 수 있다.

◇화려한 조명으로 물드는 해안선=화려한 조명으로 밤바다를 수놓는 목포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사업도 본격화됐다.

20억원을 들여 고하도~목포대교~유달유원지~대반동 해안도로~동명동 물양장~삼학도에 이르는 해안선을 '빛의 명소'로 조성하는 사업도 윤곽이 나왔다.

실시설계 용역안은 유달 유원지~구 조선내화 구간 1.4km에 LED가로등 51개와 연출용 LED 등 176개를 설치해 밤이 아름다운 해안도로를 만드는 구상이다.

또 고하도 능선 3km를 따라 5억원을 들여 가로등 25개, LED 조명 70개, 안전조명 140개를 달고 기존 조명시설을 정비한다. 고하도 산책로 3km를 따라 안전조명 280개, LED 236개를 설치해 밤바다를 걷는 재미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목포대교와 유달 유원지에 레이저 쇼와 영상을 연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전망대에서 다도해를 발 아래'=목포와 서남해안 바다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랜드마크성 상징물도 세워진다. 높이 20m 짜리 조형물 설치공사는 다음달 착공, 내년 3월 완공된다. 목포시는 15억(도비 8억원, 시비 7억원)을 투입한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고하도 조성 사업이 마무리되면 해상케이블카 개통과 맞물려 연간 1000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관광객들이 머물렀다 가는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유달산에서 바라본 고하도 전경.

## 유달산 옛 수원지 주변 친수공간 조성 마무리

유달산 옛 수원지 주변을 친수(親水)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마무리됐다.

목포시는 29일 유달산 옛 수원지 1300㎡ 일대를 친수 공간으로 꾸미고 둘레길을 정비하는 한편, 인공폭포를 조성, 시험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유달산 옛 수원지는 일제 강점기인 1910년 9월부터 1912년 12월까지 2년여에 걸쳐 축조된 저수·저사 댐과 사방시설(유역면적 0.1㎢, 저수량 3697㎡)로, 댐의 높이는 6.3m, 길이는 40m다. 일제 강점기 일본인 거주 지역에 식수를 공급하던 급수시설로, 국내 산림 내 소재한 수원지로는 가장 오래됐다. 지난해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됐다.

목포시는 옛 수원지 일대에 6억원을 투입, 인공폭포와 생태습지를 조성하고 6.3km에 달하는 둘레 길을 정비해 시민들의 편안한 휴식 공간으로 만들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kwangju.co.kr



유달산 옛 수원지에 조성된 인공폭포가 시험가동에 들어가 시원한 물줄기가 흘러내리고 있다. <목포시 제공>

## 목원동 생활상 담긴 관광상품 출시 채비

목포 목원동은 목포의 대표적 원도심으로 꼽힌다. 목포시도 시민들의 상징적 생활 공간을 되살리기 위한 재생(再生)에 시동을 걸고 있다. 목원동 풍경을 관광상품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목포시가 추진중인 목원동 상품은 원도심의 상징인 목원동 골목길, 생활·자연환경을 담아낸 머그컵, 엽서, 에코백, 파우치, 아트 다이어리 등 8종 15개 품목이다.

"응답하라! 추억의 골목길"이라는 사업에 따라 주민들을 상대로 공모를 거쳐 만든 상품들이다.

시는 앞서 목원동 먹통한가위 축제나 시민의 날 행사 때 관련 상품을 전시, 지역민들의 관심과 상품성 등을 점검했다.

시는 사업제안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디자인 보완 과정 등을 최종 마무리한 뒤 상품화에 나설 계획이다.

목원동 벽화마을의 경우 원도심의 상징인 목원동 골목길 벽면에 목원동의 정취, 역사문화를



목포 목원동 옛 시민들의 생활 문화를 담아낸 관광상품. <목포시 제공>

녹여낸 감성벽화를 골목구구마다 그려넣어 외지인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핫 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

목포시도 이같은 점을 감안, 지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목원동 일대 60만㎡를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중이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 목포교도소 교정마을 어울림 한마당 성료

목포교도소는 최근 500여명의 수형자들이 모인 가운데 '목포교정마을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목포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임영춘) 후원으로 난타공연·남도민요·가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수용자 노래 자랑대회도 열렸다. 박삼재 소장은 "수용자들이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다채로운 문화공연 통해 심적으로 안정된 수용생활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 슬라브 옥상 스틸 방수 단열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 패널

아파트, 학교, 주택,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 슬라브옥상 시공

- ▶ 방수, 단열 이중효과!
- ▶ 냉·난방비 절감효과!
- ▶ 반영구적 최신공법의 특수방수!
- ▶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 ▶ 합리적 가격, 단 한번 시공!

※ 무료 출장 견적내드립니다.

목포권, 순천·여수권 등 대리점 모집(영업 및 시공)

**TWIN 트윈스틸** (모던건설)  
광주광역시 북구 자미로 45(신안동 478-18)

**H 010-9229-3530**  
**062-5 3 1-3530**

###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 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